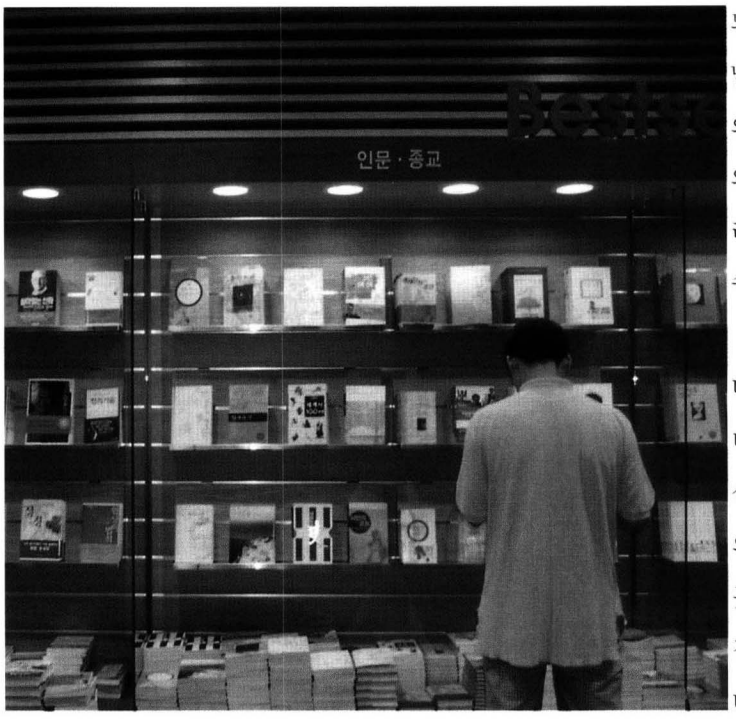
도서관의 순기능·정부투자·출판사의 재투자 학술출판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전인초 _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원장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완공, 개항되면서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여는 허브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분명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고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중심에 있다. 그래서 제대로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얼마든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동북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한국·중국·일본이다. 중국은 19세기 중엽부터 서세동점의 격전장이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세기 후반까지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오다 결국 서양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다. 세계2차대전을 통해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했던 일본의 패망 이후, 동북아는 다시 미국과 소련이 각축을 벌이는 냉전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의 해체와 분열을 가져왔다. 반면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암흑기를 끝내고 등소평의 등장과 더불어 개혁·개방정책을 과감히 시행하여 21세기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북아 국가들은 과거의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시대를 상호협력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동북아는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퍼센트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15년쯤 후에는 약 30퍼센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경제 블록이 형성된 유럽과 북미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3의 경제권이 동북아를 중심으로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출판의 핵심은 아직도 인쇄한 서적이다. 물론 디지털 시대의 서적은 전자책(e-book)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PDA 등을 이용하여 지하철 등에서 소설 등을 읽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소설의 저술과 유통 또한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인쇄하여 출판하는 서적이 출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출판시장의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세계 7위권이며, 출판사 수는 무려 19,135개, 신간 발행 종수는 38,186종(세계 8위권)에 이르고, 종사자는 2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정도 외형적 통계수치라면 우리나라도 세계적 출판강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지 위주의 교육출판시장을 합한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에 육박하는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학술서의 출판에 한정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를 보지 못해 구체적 내용을 수치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과 동료 교수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틀림없이 기대 이하일 것으로 여겨진다. 수년에 걸쳐 전문 학술연구서를 저술하고 인쇄 출판하였지만, 초판 1,000부를 다 소화하고 재판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물론 요즘 세대에게 딱딱한 학술서적이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으며 시장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수능이나 외국어·고시 등에 관련된 학습지나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서적들이 서가를 가득 메우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



하게 출판사에 돌릴 수는 없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전체 사회적 수준이 아직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아서라고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 다양한 분야의 학술서적이 출판되고 읽히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정부의 주도나 몇몇 출판사의 살신성인적인 경영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책을 읽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학술분야의 서적들도 일정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에는 기본적인 수준을 담보하는 학술서적의 콘텐츠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먼저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에 대한 애정과 지원 및 장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업계에서는 당장의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이익의 일정부분은 항상 사회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비영리사업인 학술서적의 출판에 투자하여야 한다.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서적이 읽히는 사회만이 유연한 사고와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21세기 국제화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단선적인 가치구조는 어찌 보면 해방 이후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만을 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단순한 가치만으로는 21세기 다양한 국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서로 넘나드는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은 국제화 시대에 강자가 되어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다. 우리의 것도 널리 알리고 남의 것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학술성과나 문학작품 등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작업이나 외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만드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데 출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정부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 시립 및 구립 도서관의 장서를 살펴보면 사실 거의 도서대여점 수준이다. 그곳의 기능은 이미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로 바뀐 지 오래이다. 국내대학도 그보다는 낫겠지만 외국의 유명대학 도서관에 비하면 견줄 수 없을 정도다. 정부는 곳곳에 적당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구비하여 책 읽는 사회, 공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시공부에만 전념하고, 의사 변호사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호칭되고 있는 나라들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강대국인지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서적을 수장하고 있다는 미국 국회도서관의 경우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국익과 국부를 창출하는 보고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동부의 교육도시 보스톤에 있는 MIT·하버드 등 수많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도서관과 연구실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들 도서관의 학술서는 학생과 교수의 학문연구를 돕고 그것은 세계 초일류국가로서의 미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동네 곳곳에 조그만 도서관이 있으며 그 장서라는 것이 우리네 도서대여점 수준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정도의 학술서적을 구비하고 있다. 일일이 그 예를 다 들기는 어렵겠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어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동안 말로만 듣고 구하지 못했던 전문학술서를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할 수 있었다. 우리네 대학 도서관이 이미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이다. 국내 대학의 교수연구실에 가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방에 수많은 전문서적들을 쌓아놓고 산다. 도서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학술서적을 구비하여 읽을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라고 생각한다.